

열린의회 바른의정

2022 가을호 Vol.6

진주의정

Jinju City Council



진주의정

VOL 6 | 2022년 가을호

발행인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

발행처 진주시의회

통 권 제6호

발행일 2022년 10월

편집·제작 (주)경남일보

주 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의회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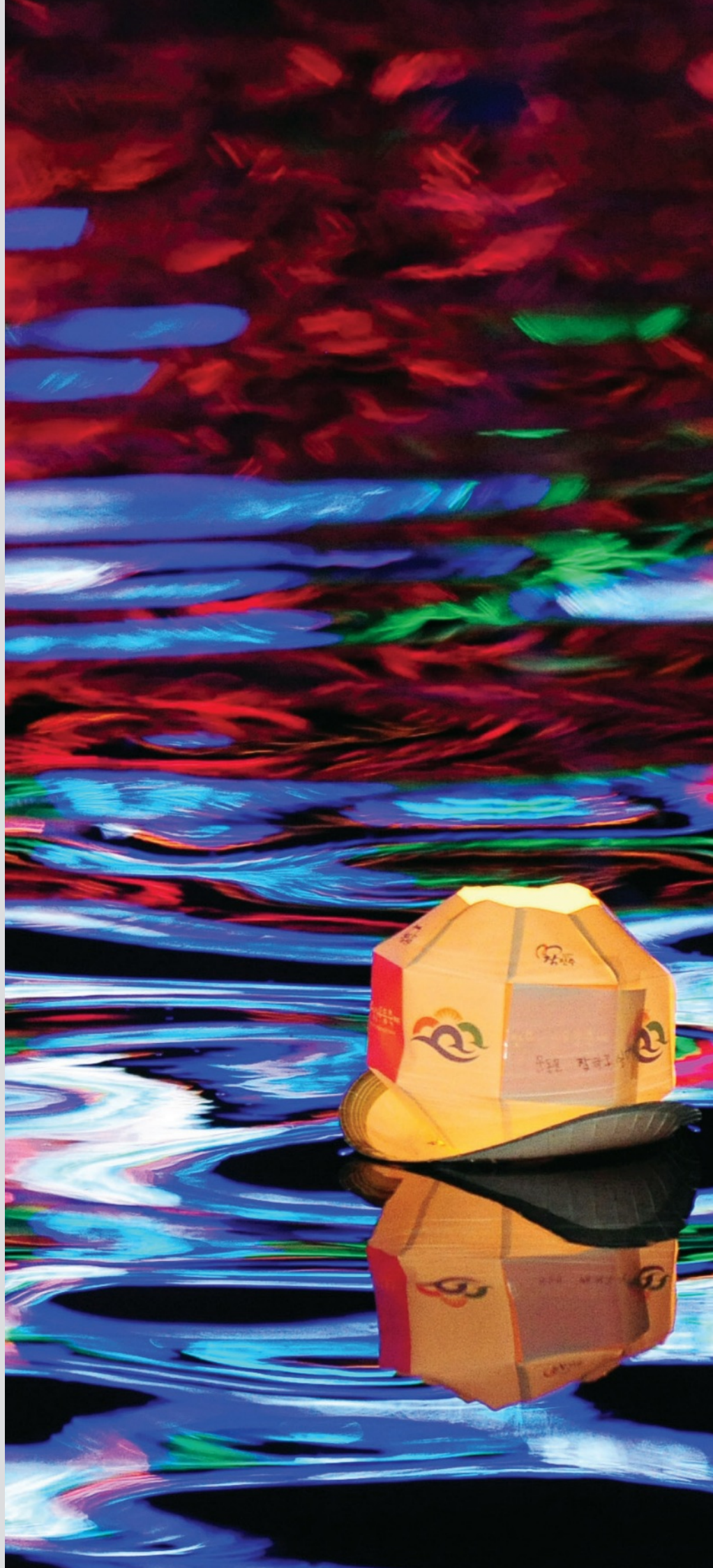
전 화 055-749-5074

진주시의회 누리집
의회에서 전하는 소식,
누리집에서 만나세요.
www.jinjucl.com



COVER STORY

진주 10월 축제를 빛내는 불꽃놀이와 진주성 공북문(拱北門)의 야경. 올해에도 진주시민의 날,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기념해 10월 10일, 27일, 31일, 11월 3일 오후 8시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화려한 불꽃이 축제장을 밝힌다.



Contents

기획특집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다

- 04 기획특집 I
시민 기대 한몸에 안고 제9대 의회 '앞으로'
- 07 기획특집 II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는?
- 08 제9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현황
- 10 인터뷰
제9대 전반기 양해영 의장, "선진의정 구현은 내 운명"
- 14 기획특집 III
21명의 시의원, 발로 뛰는 현장활동 펼쳐



지금 의회는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회의 노력

- 18 진주시의회 주요 의정 현황
- 22 5분 자유발언
- 26 의정활동 이모저모



진주 공감 시민과의 열린 소통

- 30 의원이 간다
22人 22色 라디오 공익캠페인 녹음 현장
- 32 시민광장
與民,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 33 진주 안에
10월 축제 소식
- 35 기고 및 구독신청 안내



시민 기대 한몸에 안고

제9대 의회 ‘앞으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원년을 맞이하며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뽑은 22명의 의원 중 14명이 초선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만큼 변화할 진주의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이 가운데 개원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원 구성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내 시민들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냈다. 의원들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어 시민만을 바라보며 협치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정 감시·견제에 힘을 모으는 데 의기투합했다.

협치 공감한 여·야의 원만한 합의 끝에 원 구성 순조롭게 완료

양당이 나눈 충분한 대화는 7월 5일에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전반기 의장단 선출 결과로 확인됐다.

이날 의장에는 경남도의회를 두 차례 경험한 4선 양해영 의원(국민의힘)이, 부의장에는 초선 최신용 의원(국민의힘)이 선출됐고, 특히 양 의장은 기권 1표를 제외하고 22표 중 21표를 얻으며 확고한 원내 지지를 기반으로 전반기 의회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새로 도약하는 뜻깊은 이때 진주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명예와 의회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를 떠나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협치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상임위원장들 “동료의원과의 소통으로 화합 노력” 한목소리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기획문화위원장으로 황진선 의원(국민의힘, 재선), 도시환경위원장으로





강진철 의원(국민의힘, 초선),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선출되며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3명의 위원장은 각자의 취임 인사를 통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도 모두 하나같이 '동료의원들과의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 건설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제9대 시의회는 자치분권 2.0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유행의 지속,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불안한 세계경제 등 각종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반목하는 정치로는 시민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다.

의회운영 총괄 맡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임기향 의원 처음으로 상설화되는 윤리특별위원장에 신현국 의원

7월 11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열려 임기향 의원(국민의힘, 재선)이 의회운영위원장, 신현국 의원(국민의힘, 초선)이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의원들은 의회사무국과의 소통, 전반적인 의회 운영 등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선 임기향 의원에게 전원 찬성표를 주며 또다시 협치를 바탕으로 한 전반기 의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신현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위원회임에도 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로써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진주시의회는 22일부터 제239회 임시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궤도에 올라섰다. 여러 타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 등과 관련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대화로 긍정적인 신호탄을 쏜 진주시의회가 더욱 성숙한 지방정치를 보여줄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린다.

양해영 의장, 관계기관 10여 곳 찾아 협조체계 구축 “역할에 충실하며 기관 간 발전 적극 협력” 당부

원 구성이 끝나자 양해영 의장은 18일부터 3주간에 걸쳐 선진 의정을 구현하는 데 협력을 얻기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 10여 곳을 찾아 소통 행보를 시작하며 제9대 진주시의회 출범을 알렸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오롯이 경험하는 이번 의회의 의의를 알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무게감을 둔 의정 추진 의욕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양 의장은 첫 방문지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줄 것”, 이어 방문한 서경방송에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그 밖에도 경남일보, 경남도민신문,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상공회의소,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진주문화원, 진주소방서, 진주MBC,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한국남동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KBS진주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장과 대화를 나눴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전 의원 대상 두 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과 한차례의 심화 교육, 제239회·제240회 임시회와 올해 지방선거로 미뤄져 9월 개최된 제1차 정례회 등으로 숨 가쁜 회기 일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직은 7월 초 개원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4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아 보인다.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정 여건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층 나아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해 시의회는 제9대에 들어 모처럼 의정 구호의 디자인을 개선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

‘열린의회 바른의정’

더 예뻐졌지만 변함없는 울림을 가진 구호처럼 시민들은 진주시의회가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기를 열망하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 법률은 올해 시행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격 시행된 개정법은 주민주권 실현,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지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 변화를 담았다.

기존 법은 지자체 중심으로 정부와의 상하관계에 기반한 「자치분권 1.0」의 근거였다면, 이제 주민 중심이자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 2.0」으로 자치분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시대정신을 품게 됐다.

이제야 새 옷을 입은 지방자치법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틀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랜 기간 숙원으로 여겨지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마침내 실현됐다.

개정법은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강조하면서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조항에서 청구인 수와 기준 연령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일부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진주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시의회 조례·규칙 29건의 제·개정을 마무리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질적 향상을 인식해야 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기울어져 있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중대 과제였다. 비록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 관리 권한이 이양되지 않고, 정책지원 전



문인력의 정원 의원 정수의 절반만 주어졌다는 아쉬움은 남았으나 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급선무였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체는 괄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충분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명칭과 다르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낼 수 없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지적했고, 논란 속에 삭제된 주민자치회 규정 때문에 주민 없는 주민자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례시 제도에 경남 창원시가 포함됨에 따라 경남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 권한 확대로 자치 분권 실현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으나 상당수 지역이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에 한정해 재정자율권 및 인사권을 확대 보장한 것은 인근 지역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이제라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계기가 마련됐다고 법 개정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큰 틀의 변화가 이뤄졌으니 이제 지방정부와 의회에 공이 넘어갔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및 행정 전문가들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변화된 제도와 걸맞은 지방의회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대의기관에서 그 위상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충분조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제9대 진주시의회 위원회별 의원 명단

(가나다순 / 국=국민의힘, 민=더불어민주당)



의장
양해영
(국)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현명함과 지혜를 빌리는 열린 자세로 의정 운영에 임해 의회 위상 제정립 등 의장으로서 본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부의장
최신용
(국)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처럼 오늘날 우리가 의회에서 지역의 대표로 나설 수 있도록 한 시민의 뜻에 유념하겠다. 성공적인 전반기 의회를 위해 동료의원의 많은 성원을 당부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의 새 시대를 맞아 개정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더욱 가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위원장
임기향
(국)



부위원장 정용학(국)



위원 김형석(국)



위원 오경훈(국)



위원 이규섭(민)



위원 전종현(민)



위원 최지원(민)



기획문화위원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특히 늘 동료의원들과 소통해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위원장
황진선
(국)



부위원장 전종현(민)



위원 박미경(국)



위원 박재식(민)



위원 백승훈(국)



위원 임기향(국)



위원 정용학(국)



도시환경위원회

“조규일 진주시장의 부강한 진주 성공에 힘을 보태되
감시와 견제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위원장
강진철
(국)



부위원장 이규섭(민)



위원 강묘영(국)



위원 박종규(국)



위원 서정인(민)



위원 신현국(국)



위원 오경훈(국)



경제복지위원회

“지난 4년간의 노하우로 앞으로 2년간 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며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겠다.”

위원장
윤성관
(민)



부위원장 김형석(국)



위원 신서경(민)



위원 최민국(국)



위원 최신용(국)



위원 최지원(민)



위원 최호연(국)



윤리특별위원회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자정 능력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위원장
신현국
(국)



부위원장 박재식(민)



위원 강묘영(국)



위원 강진철(국)



위원 윤성관(민)



위원 최호연(국)



위원 황진선(국)

진주시의회 첫 여성의장 취임

“선진 의정 구현은 내 운명”

2006년 진주에서는 최초의 여성 지역구 시의원이 탄생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초선임에도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첫 여성 상임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역임했고, 두 차례 도의원 당선에 이어 2022년 제9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됐다. 진주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양해영 의장의 이야기다.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초선 의원 못지 않은 열정에 광역의회에서의 경험을 더하겠다는 양해영 의장에게 취임 포부와 미래 비전을 물었다.

PROFILE

- 선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진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전공
- 진주산업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전공
- 前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조정위원
- 前 진주시의회 5대 의원
-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前 경남도의회 9대·10대 의원
- 경남도의회 관광산업연구회 회장
-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3개월이 흘렀다. 개원 당시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처음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 등 의회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각 의원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 조금 더 현실적인 정치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많은 의원과 함께하기에 의장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일이 많을 듯한데?

본래 정치란 각자의 관점으로 흩어진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핵심이며, 이는 지방정치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중심에 있는 의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자명하다.

의회 운영의 결정권을 의장이 쥐고 있다고 해서 홀로 선순환의 정치를 실현하기란 어렵다. 의장은 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공감과 합의를 이끄는 설득의 리더십에 방점을 찍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 의원 한명 한명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 내내 돕겠다.

도의회를 경험하고 시의회로 되돌아오는 건 의외의 일이다. 어떤 꿈이나 목표를 좇아 선택한 건가?

기초의회로 돌아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재도전하는 데는 분명한 사명감이 필요했다. 광역 의정 활동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진주의 지방정치 발전을 일구는 데 헌신하겠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도의회를 경험하며 초선 의원 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웠고, ‘우리 진주에서도 이렇게 해봤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늘 가슴 한편에 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진주시의회에 선진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협치를 강조해왔다. 지난 7대, 8대와 달리 의석수 균형이 기울어져 있음에도 협치를 키워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려면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야 한다. 힘의 논리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 마치 불균형한 식습관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지역 사회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소속 정당 안팎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에 공감해 주면서 실제로 의정 추진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조규일 진주시장과는 같은 당 소속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

늘 강조하는 협치는 넓게 보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미 원내 양당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의회 다수 의원이 시장과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확고한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달려간다면 종착점은 결국 달라진다고 믿는다. 적당히 구호만 외치고 행동하는 데 주저하는 소극적인 의정은 지양하겠다는 점에서 의원들 모두 한마음이다.

선진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최근 (사)진주시의정회와 전체 의원이 모여 처음으로 의회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원로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의정에 반영하려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늘리겠다. 또 새로운 자치분권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연찬도 지속하겠다.

진주시의회는 일찌감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며 새로운 제도 적응에 애쓰고 있다. 성공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지?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와 그들의 역할이 명확하기에 이를 올바르게 의회에 적용해야 한다. 제도 도입 전부터 지방의회에서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는 제도가 목적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원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관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당분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열린 자세로 노력하면 결국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또 향후 시군의장협의회, 도의회와도 협의해 정책지원관의 역할, 의정 지원 기법,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심화 교육 기회를 늘리고, 합동 집합교육을 실시해 바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광역의회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의정 구현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제 절반만 왔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 정수의 1/2로 정원이 제한돼 아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전 지방의회에서 염원해 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 조직·정원 관리 권한이 빠진 채 불완전하게 이뤄져서 더욱 아쉽다.

집행부의 조직과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다양화되는 만큼 사무국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회가 원활한 기능을 해내는 데 애로가 많다.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권도 이양되지 않았다.





우리 의회는 추가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고립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타 기관과의 인사 교류 협력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 현황은 어떤가? 기대했던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됐는데도 진주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인구 유입과 같이 계량화된 자료를 살펴보면 진주시가 지난 수년간 아쉬운 성적을 낸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기도 했거니와 이보다 앞서 지역 성장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탓도 있다. 우리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에 충실히 임하면서도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는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 진주시의 부단한 사업 발굴 노력을 당부한다.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현안이 있을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격차도 완화해 균형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신규 주택단지를 따라 상권도 파편화됐고, 주거 여건에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널리 살펴 돌 봐야 한다.

또 KTX 남부내륙철도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빨대 효과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 마련도 절실하다. 사통



팔달의 도시 진주가 그저 거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알려져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젊은이들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 분야 확충이 선결과제다.

원 구성 후 3개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출발선에 섰다는 느낌도 든다. 갈 길이 멀 텐데 의장으로서 2년이라는 임기가 짧지 않나?

진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까지보다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임기 내내 쉽 없이 일할 각오다. 흔들림 없는 의정 수행을 위한 의회 위상 강화, 체계화된 선진 시스템 구축을 임기 중에 해내서 누구나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과 한뜻으로 일하다 보면 후반기 원 구성 뒤에도 제9대 진주시의회의 기초가 크게 선회 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균형감 있는 자세, 낮은 자세로 늘 시민 곁에 있겠다. 의정에 대한 많은 관심, 따뜻한 응원과 힘찬 격려를 당부드린다.

제8대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발자취

21명의 시의원, 발로 뛰는 현장활동 펼쳐

제8대 진주시의회 마무리 간담회

2022. 6. 27.(월) 11:00



지난 6월 30일 제8대 진주시의회(2018년 7월~2022년 6월)의 공식 임기가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진주시의회는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10명과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1명, 민중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발로 뛰는 현장 활동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진주시의회는 제203회부터 237회까지, 총 8차례의 정례회와 27번의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의원발의 안건 79건을 비롯해 총 66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회생방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의정소식지 발간 등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며 LH해체·분리 반대 및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활동,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시민 안전과 진주시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사다난’하고 치열했던 제8대 진주시의회가 남긴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부 견제

제8대 진주시의회는 어느때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실제 2018년 9월 열린 도시개발과에 대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는 2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용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10월 24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며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또 4년 간 140건의 5분 자유발언과 27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진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79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도 펼쳤다.

시민과 소통, 청렴 의회 구현

진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9년 삼성교통 파업 종료 후 노조원 2명이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3월 5일 진주 나들목 인근 지상공용(전파)기지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유한국당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0일 진주시민행동 강수동, 이환봉 공동대표와 함께 직접 철탑에 올라 노조원을 설득하기도 했다.

2020년 민주당 허정림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으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지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 등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밤 11시 이후)이나 휴일,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장소, 친목회·동호회·시민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간 식사 등도 제한했다. 2021년 3월(제228회 임시회)에는 의회 생방송 중계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에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통한 의회 생방송 중계를 최종 결정했다. 또 같은 해 의회소식지도 발간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소개했다.

지역사회 대변인 역할 충실

지난 2019년 4월 박성도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경남지부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식을 가지고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시의원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수출 규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조치 즉각 철회와 함께 진주시에 일본 제품 불매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교류활동과 일본 여행 자제를 다짐했다. 또 8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KBS진주방송국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BS진주방송국 축소·통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2020년 2월에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창원시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또 2015년 서부청사 개청과 함께 창원에서 진주로 이전한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재이전 논의를 중단할 것을 경남도의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 반대, LH 분리 반대,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던 2020년 12월에는 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이 '착한 선결제 진주시민 캠페인'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정재욱 의원의 선결제 캠페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남도를 비롯해 진주시, 진주지역 각종 기관, 봉사단체 및 시민 개인의 참여가 잇따르기도 했다.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에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고 이에 시는 2021년 4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2021년 5월에는 류재수 의원과 서은애 의원이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일일 동조 단식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8대 진주시의회는 지역사회의 핫이슈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맞춰 의회 독립성 강화

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 독립성도 강화해 나갔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 시행(2022년 1월)을 앞두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 1_ 2019년 4월 29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한 시의원들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서약함에 담고 있다.
- 2_ 2020년 7월 9일 이상영 의장과 임기향 의원이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과 함께 옥봉NH행복주택 인근 수해 지역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 3_ 2021년 9월 16일 진주중앙시장에서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에 나선 이상영 의장과 시의원들. 진주시의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충실히 진행했다.

2021년 12월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개정안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활발한 활동 속 몇몇 아쉬운 점도 남겨

환경공무직(2020년)과 청원경찰 채용과정(2018~2019년)에서 공무원 자녀가 채용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조사 특위 구성안이 상정됐으나 수차례 부결되면서 진주시의회는 내홍을 겪었다. 당시 원내 갈등이 깊어지자 원만한 대화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성과를 가리는 가장 큰 아쉬운 일로 기억하게 됐다.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여야 간 대립의 지속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시민 기대를 채우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부 시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우려를 사거나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향후 의회가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진주시의회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진주시민행동 이환문, 강수동 공동대표가 2019년 4월 20일 진주 나들목 인근 철타에 올라가 농성 중인 김영식 삼성교통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239회 임시회 2022. 7. 22.~7. 29.(8일간)



제239회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원안가결>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원안가결>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주요 의안 심의 및 처리 내용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정용학 의원 외 6인

개정사항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21명 → 22명)에 따라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7명 이내 → 9명 이내)해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 운영을 기함.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 김형석 의원 외 6인

개정사항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소관 부서에 따라 변경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 조정함.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함.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발의자 | 오경훈 의원 외 6인

개정사항 •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해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해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사무 및 역할을 추가하고, 기존 업무분장을 세분화함.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인력 직급 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

주요 내용 • 별정직 공무원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

- 6급상당(35% 이내 → 70% 이내), 7급상당(35% 이내 → 30% 이상), 9급상당(삭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내용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의 처리 효율 제고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제안내용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 제2020-43호)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편성사업 :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년허브하우스 건립)
- 총사업비 : 506억 원(국비 180, 도비 36, 시비 232, 기타 58(기금 18, 교육지원청 40))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 지역건설산업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해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타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포함 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체 조문 삭제해 공정거래 위반 요소 해소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이유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대규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지역 내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환경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2억, 민간 38억)

진주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조례 제정 이후 추가된 기업가정신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포함한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개정사항 시설전체를 통칭하는 명칭 사용해 제명 변경(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이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해 재난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 종사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제안이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위탁 주요사항

- 위탁사무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시설 : 진주프리미어벨라 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23. 3월 ~ 2028. 3월(개원일로부터 5년)

제240회 임시회 2022. 8. 30.~9. 2.(4일간)



제240회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2,124,166,179	1,998,312,539	125,853,640	6.30%
일 반 회 계	1,686,990,603	1,577,608,930	109,381,673	6.93%
특 별 회 계	437,175,576	420,703,609	16,471,967	3.9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2,124,455,737	2,124,166,179	289,558	0.01%
일 반 회 계	1,687,280,161	1,686,990,603	289,558	0.02%
특 별 회 계	437,175,576	437,175,576	0	0.00%

진주시의회는 9월 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진주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일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았다.

2차 추경안에는 분야별로 ▲문화 및 관광분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35억원,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22억원, △남강유람선 김시민호 추가 건조 18억원,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추진 16억원, ▲환경 및 교통 분야 △전기버스 구매지원 21억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62억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14억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0억원, △저소득층 한식생활지원 69억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5억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18억원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우수굴 소하천 정비사업 16억원,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2022. 9. 14.~10. 4.(21일간)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결과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의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량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려 17개 안건을 두고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28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의안 의결은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주요 의안 심의 및 처리 내용

제2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수상대상 故 최규진(1935.12.30.~2020.02.19.)

수상이유 • 토지·건물 기증으로 남가람박물관 개관에 큰 보탬을 주고, 공익재단법인 남가람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유산 2,500여 점을 사회에 환원함.

- 진주국립박물관 유치 및 해외 반출로 문화재 환수에 이바지함.
- 초대 진주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 주도하고, 장학사업 등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함.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 진주문화원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진주의 창의 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674.4㎡, 건물매입 1동 236.87㎡ / 사업비 1,35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뉴딜사업(공모) 거점 시설 활용과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등 동시 활용

- 주요시설 : 가칭)자유시장 어울림센터(다문화인 동부 가족센터, 다목적실 등)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6필지 2,967㎡ 및 건물매입 13동 4,668.80㎡, 건물(지하 1층~지상 3층) 신축 1동 5,449.53㎡ / 사업비 40,050백만원
- 주요시설 :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 지하주차장 등 문화시설

일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내용 철도 역사기록 전시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기능, 개관 시간, 휴관일, 관람료, 대관료 등과 관리 및 운영 위탁사항에 관해 규정함.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확실적인 전대 금지 규정을 위탁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개정함.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사천공항 이용 진주시민의 이동편의를 향상해 사천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일부개정함.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항공사업자의 범위에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업자 외에 항공기취급업자도 포함되도록 함.
• 지원내용을 경상남도 조례와 통일하고, 지원금의 심사 및 교부 기한을 삭제함.

진주시관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충전금액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게 조정하고,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명절, 축제, 재난, 지역경제 위기 시 할인율을 100분의 1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 지역상권구획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금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시민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이유 진주시 관내 우수기술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검증하고, 성장 가능한 기업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지원하고자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시 모태펀드(투자조합) 출자사업 운영 사무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위탁 주요사항

- 수탁자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위탁기간 : 2022. 11. ~ 2029. 12.(8년)
- 소요예산 : 총600,000천원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15명 → 20명)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충효교육원의 주소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별관 신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해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전대 관련 규정을 개정함.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시립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개정해 혁신어린이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을 추가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2,651,764,395,922원
- 세출결산액 1,961,966,288,686원
- 결산상잉여금 689,798,107,236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각 특별회계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310,547,057,964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471,917,47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779,131,793원임.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재정상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2020년	6,995,502	341,840	6,653,662
증감	108,455	△167,121	275,576

회계연도	재정운영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1년	1,627,191	1,877,711	△250,520
2020년	1,347,281	1,400,638	△53,357
증감	279,910	477,073	△197,163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242개 지표 중 초과달성 42개(17.4%), 달성 136개(56.2%), 미달성 64개(26.4%)의 달성도를 기록함.

결산액

- 2021회계연도 결산액 : 1,715,187백만원 (135,677백만원 증가)
- 2020회계연도 결산액 : 1,579,510백만원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영상은 진주시의회 인터넷방송 누리집(tv.jinjucl.com)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 / 기획문화위원회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314억이 투입돼 올해 3월 준공됐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한 회전교차로 주변은 출근 시간대 진·출입 차량들이 뒤엉켜 정체와 혼잡을 빚고 있으며, 회전교차로를 벗어나면 주약동 방향으로 우회전할 차량은 고려병원 사거리로 나가는 직진 차량의 길 막음으로 바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여러번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 곳은 처음 개통할 때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체증으로 광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었고, 주약동 방향 우회전 차선확보를 위해 한차례 개선공사를 하였으나 도로 구조상 문제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아 현재도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성우팰리스 방향 회전교차로 주변 곡각지점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차선 확장 등으로 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교통 흐름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최신용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제 9대 진주시의회를 만들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 전반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수평적 관계 정립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겠다.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진주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주시 전체 공직사회에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진주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품격있는 의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주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규섭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농업부문 에너지 지원사업 적극 검토해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진주시에서 추진해 온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농가에 지원이 되더라도 처음 선정된 후 받는 묘목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영농사업을 시작하는데에는 큰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시설농업을 지속하기에는 겨울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국제정세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고유가로 인하여, 영농사업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농가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도비로 지원하던 전기난방기 지원사업과 국비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조 사업 외에, 진주시 차원에서 농업 부문 에너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황진선 의원 / 기획문화위원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버스 도입 제안



진주시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주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7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시티투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기본적인 관광 서비스 측면에서 시티투어도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시티투어는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과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진주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광역화 사업에 대비하여 진주시에서도 인근 사천시, 산청군 등과도 연계하여 시티투어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석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조성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천전동 소재 진주세무서와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사이의 거리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타세쿼이아 특화 거리와 빛·음악 거리 조성'을 제안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뒤편 거리는 메타세쿼이아가 있어 경관이 뛰어나다. 메타세쿼이아의 경관에 음악과 조명을 활용한 사계절 분위기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기억되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루미나리에, 포토존, 파사드 등을 디자인 설치하여 4계절 장르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화 거리를 조성하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될 것이며, 현재 진주시에서 조성 중인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불천 자전거도로 개선책 마련돼야



현 나불천 자전거 도로에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나불천 자전거 도로는 이현동, 명석면 주민뿐만 아니라 상봉동, 유곡동 주민들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좌우로 하천과 논밭이 펼쳐져 있고 바람개비와 풀들, 예쁜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이지만 요즘 나불천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고속도로 아래 어두운 구간에 안전난간이 없어 여전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며, 명석면 소재지에 달은 자전거도로 끝부분에는 안전표시 없이 곧바로 자동차도로와 만나게 되어 야간이면 더욱 위험하다.

둘째, 2019년 이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되었으나 표지판만 새로 설치하고 바닥표시는 그대로여서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 적극적인 발굴을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기준 6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돌봄 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가족의 장기 간병이 경제·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간병파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는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활기찬 노후보장과 경제인구의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평거지구 중학교 이전 재배치 적극 검토를 해야



진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은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지역내 오랜 시간 방치된 중학교 부지 몇 군데에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러한 목소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평거지구 주거지 한복판에 3,300평 규모의 공터가 10여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

이에 평거지구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만일 중학교 신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교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길 바란다. 학교 신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진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윤성관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대안 촉구



망경동과 칠암동 일대 천전지역 주민들은 10월 축제 때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영업안으로도 직결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 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차난으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 또한 진주시 주차정책의 개발을 건의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파악하여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강진철 의원 / 도시환경위원회

쓰레기 배출 줄이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배출을 줄이고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따라서 진주시도 이제는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2021년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를 제정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 29곳, 경남권 2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황진선 의원 / 기획문화위원회

진주시 도시 브랜드 변경 제안



현재 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참진주’이다. 브랜드 개발 이후 진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도시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도시 브랜딩 전략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참진주 브랜드가 진주시와 잘 어울렸으나, 진주시가 더 크고 부강한 진주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대표 브랜드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에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제안한다. 대표 캐릭터 ‘하모’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과 함께 핫스타상, 라이징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하모는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긍정의 메시지를 주며 지역의 정서에도 잘 부합된다. 이번 캐릭터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과 시정 전반에 하모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진주의 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충혼탑 참배로 각오 다지며 의정활동 본격 시작

여·야 합의로 원만히 원 구성을 마친 진주시의회는 7월 12일 임진대첩계사순의단과 충혼탑에 참배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상기하고 본격적인 전반기 의정활동 출발을 알렸다.



전반기 시의회, 기자간담회 통해 의정 방향 설명

8월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시책과 의정 운영 방침을 밝히며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널리 홍보해달라고 언론의 협조를 구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 여름철 재해위험지 점검

8월 5일 양해영 의장, 최신용 부의장, 5개 위원회 위원장 등 진주시의회 의장단과 서정인·전종현 의원이 집현면 장재·장흥 재해위험지구와 명석면 신기리의 여름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시정 운영의 최우선 방침을 시민 안전으로 삼아달라고 진주시에 당부했다.



정책지원관 성공적 안착을 위한 내부간담회

의장단은 8월 25일 올 상반기 채용된 정책지원관의 의견에 직접 귀 기울이는 자리를 가지며 정책지원관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려는 선진 의정 구현 의지를 내비쳤다.



즐겁고 유익한 의회 견학 참여한 봉원초 학생들

봉원초 6학년 학생들이 7월 15일 진주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임기향, 강진철, 백승흥, 정용학 의원 등이 교실 밖 지방 의정활동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를 도와 호응을 얻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 남강댐 방류 현장 점검

역대급 위력의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던 가운데 9월 5일 진주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해 남강댐 본류 수문 개방현황과 수위 등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 시민 안전을 고려한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한복 차림 등원해 민족 고유의상 한복 사랑 전파

9월 14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모든 의원이 한복을 입고 등원해 실크의 명산지 진주를 알리고 한복 착용에 모범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2019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고 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맞아 따스한 온정 나뉘

양해영 의장, 최신용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은 추석을 앞둔 9월 6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촌장애인일자리타운을 비롯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생필품으로 구성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방문에 나섰다.



제9대 첫 연구단체 출범... 정책 연구에도 최선을

김형석 의원과 서정인 의원이 8월 30일 각각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와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 개발 연구회'의 등록 신청했다. 연구단체는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우수 사례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강연, 의원 연구 포럼 등 연구 활동을 지속한다.



청렴 서약식 통해 깨끗한 의정 '다짐'

제24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8월 30일 진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서약식 및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추진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엔 새로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이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얻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시의회 찾아 현장소통 약속

진주시의회는 9월 16일 도지사 방문을 환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을 건넸다. 경상남도 민선 8기의 소통 노력에 호흡을 맞춰 시의회도 지역 간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의 과거와 현재, 의정회와의 공식 간담회

진주시의회가 전직 시의원 단체인 사단법인 진주시 의정회와 9월 7일 첫 공식 시책간담회를 개최해 의정 발전을 위한 선배 의원들의 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행사에 참석해 진주 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 현장서 행정사무감사 펼쳐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서 대상 현지 확인으로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했다. 9월 15일 도시환경위의 매립장사업소,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에 이어 경제복지위는 22일 바이오산업진흥원, 실크산업혁신센터 등 공공기관과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기획문화위는 26일 도시관제센터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현장을 찾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에 내실을 기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진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22人 22色 다양한 색깔

공익캠페인

녹음현장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건물들 사이로 남강을 곁에 품은 하얀 벽돌 건물의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난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넉넉한 몸집 만큼이나 푸근한 미소의 R 녹음실의 주인장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온 수고를 위로라도 하듯 그가 건네는 향긋한 커피가 정겹다. 정갈하게 정리된 녹음실, 음악이 좋아 젊은 시절 기타연주도 하고 밴드 활동도 했다는 녹음실 주인장은 의원들만큼이나 작업에 진지하고 열성적이었다.

작열하는 여름의 태양을 뒤로하고 22명의 진주시의원이 지난 8월, 사흘간의 일정으로 공익캠페인 라디오 음원 녹음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녹음은 새로이 입성한 9대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공익 메시지를 라디오 매체를 통해 친근하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비록 편당 1분 남짓한 빠듯한 시간임에도 22명 각자의 음원을 제작하는 과정은 녹음실 섭외부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전 의원 참여를 중시한 양해영 의장의 의견에 따라 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캠페인의 주제는 여러 의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했다. 기후위기 대응 생활 실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 지역 축제 및 명소 소개, 헌혈, 건강한 식습관 등 우리 자신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여러 제언을 담았다.

22人 22色, 톡톡 튀는 각자의 개성을 담아 진행한 일정에 일부 의원은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여과 없이 사용하며 넘쳐나는 흥과 끼를 발산해 참여한 다른 의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수억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녹음 장비들이 그저 신기하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본인의 목소리를 어색하게만 여기던 의원들은 몇 번의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고 노련하게 작업에 참여했다.

“시의원이라 해서 권위적이고 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녹음작업을 통해 그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정말 재미있고 좋은 분들인 거 같아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이 좀 더 친근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녹음작업을 해 왔지만 시의원과는 처음이라 살짝 긴장했다는 녹음실 박대표. 그의 우려가 놀라움과 기대로 바뀌면서 사흘간의 녹음은 유쾌하게 진행됐다.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은 “대본 작업부터 녹음까지 직접 참여하며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생활 실천 방법 등을 고민하는 동안 더 나은 의정을 구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후기를 전했다.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제작된 공익캠페인은 8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MBC경남 라디오 FM4U(진주 97.7MHz)와 표준FM(91.1MHz)을 통해 하루에 4번씩 시기별, 이슈별, 상임위원회별로 분산하여 60일간 송출되고 있다.



의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각양각색의 공익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작업에 들뜬 분위기로 녹음작업에 임했다.



양해영 의장



최신용 부의장



임기향 의원



황진선 의원



강진철 의원



윤성관 의원



신현국 의원



서정인 의원



백승호 의원



박미경 의원



강묘영 의원



김형석 의원



박종규 의원



정용학 의원



이규섭 의원



박재식 의원



오경훈 의원



최민국 의원



전종현 의원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신서경 의원



與民,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김종현 경남도민일보 부국장



진주시의회 청사를 둘러보면 곳곳에 걸린 큼지막한 액자들을 눈에 띈다. 의장실 앞에 ‘위민의정(爲民議政)’이, 2층 의원연구실 복도에 ‘여민해락(與民偕樂)’, ‘박채중의(博採重議)’ 등이 각각 걸려있다.

위민의정은 ‘시민(백성)을 위한 의정을 펼친다’는 뜻으로 많은 시군의회에서 이 글귀를 걸어두거나 의장 취임사를 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위민의정 대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의회를 대표하는 글귀가 됐다. 여민해락은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말로 ‘임금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시민과 더불어 함께 즐긴다’라는 뜻이고, 박채중의는 후한서에 나오는 말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음’이라는 뜻이다. 액자들은 한결같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마 역대 의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 시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뜻에서 액자를 하나 둘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석 달이 좀 넘었는데 과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하고 있을까? 개원 후 석 달 동안의 행보와 의회 사무감사, 윤리위를 지켜보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초선의원이 많고 첫 행정사무감사여서인지 아직은 서툴러보인다. 일부 의원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아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처음이니까’, ‘경험부족’이라고 위안해보지만 정치인은 ‘초보’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시민들이 9대 진주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역대 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계 도입을 이룬 첫 의회이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계 도입이라는 2대 무기를 장착했으니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권 독립은 역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기자도 2000년도 처음 진주시의회를 출입할 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보아 9대부터 독립을 이뤄냈다. 인사권 독립의 의미는 특별하다. 예를 들어 의원과 집행부가 대립하면 의원 1명과 진주시청 1500명이 넘는 직원과 ‘맞장’을 뜨게 되는데 종전에는 의원을 도와줘야 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의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어 시청으로 돌아가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은 많진 않지만 내편 즉 우군을 얻었다. 의원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함께 싸워줄 동지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정책지원관계가 도입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책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된 양해영 의장의 각오는 대단하다.

진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정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련하는 파격을 보이며 달라진 의회상을 보여 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회견에서 “지방자치 30여 년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면서 “커지는 시민 요구에 책임의정으로 보답하겠다”며 책임의정을 약속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입법 및 법률고문제도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거양, 특위 및 의원 정책연구단 구성 등을 통한 입법·정책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견제는 의회의 가장 큰 책무다. 단순한 거수기가 아니라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히며 견제에 무게를 두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대 의회에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젊어진 의회, 소속 정당을 떠나 경험 있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진작시킨다면 가장 패기 넘치고 활기찬 젊은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도에 걸려있는 위민의정, 여민해락 정신을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다.



문화관광축제
문화대부 문화관광축제



진주
CHARM



진주남강 유등축제

2022.10월.10 ▶ 10월.3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진주남강 일원

GYEONGSANGNAM-DO JINJU CITY
慶尙南道 晉州市





주최 진주시·진주문화예술재단
주관 진주남강유등축제 재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언론기관
문의 055)755-9111, 761-9111, 749-8588 www.yudeung.com



부강한진주
행복한시민



제126회 진주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

기 간

2022. 10. 26.(수) ~ 10. 31.(월) 6일간
※ 개회식 : 2022. 10. 29.(토) 13:00

장 소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진주시 판문오동길 100)

주요행사

소힘겨루기대회, 경품추첨, 초청가수 공연

주최/주관

진주시 / (사)진주투우협회

대회일정

일 자	시 간	대 회 내 용
10. 26.(수)	09:00 ~ 일몰 시	☉ 계체 및 대진추첨
10. 27.(목)	10:00 ~ 일몰 시	☉ 종별 예선전
10. 28.(금)	10:00 ~ 일몰 시	☉ 종별 예선전
10. 29.(토)	10:00 ~ 일몰 시	☉ 종별 16강전
	13:00 ~ 13:30	☉ 개회식
10. 30.(일)	10:00 ~ 일몰 시	☉ 종별 8강전
10. 31.(월)	10:00 ~ 15:00	☉ 종별 준결승전
	15:00 ~ 15:30	☉ 결승 및 시상식

진주시의회 소식지

시민 참여 및 구독신청 안내

진주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쉽게 간편하게 의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의정소식지 「진주의정」을 분기별로 발간합니다. 제작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지면에 참여할 수 있으며 편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정소식지 「진주의정」을 자택이나 직장에서 더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1부씩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 독자 투고 및 의견 제출

전자우편 : jinjucity1@korea.kr

일반우편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 (상대동)

구독 신청 안내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
jinjucl.com 접속 → 의회소식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신청

문의 전화 ☎055-749-5074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의회소식지 구독신청





진주시의회
JINJU CITY COUNCIL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의회
TEL 055-749-5074
누리집 www.jinjucl.com

